

『翻訳と日本の近代』의 우리말 번역서에 나타난 번역상의 문제점

정 일 영
(경희대)

1. 머리말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제약을 받아오던 일본대중문화는 1998년 4월 정부의 단계적인 문화개방정책 이후, 2008년 현재 영화, 비디오, 만화, 소설, 가요 등 많은 수의 일본대중문화가 우리의 대중문화 속으로 유입되어 있다.¹⁾

2007년 대한출판문화협회 경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도서 발행통계를 보면, 총 53,225종의 신간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23.2%로 12,231종이나 된다. 이들 번역서의 원산국별 비중을 보면 일본이 37%, 미국이 31%로 일본과 미국이 절대적인 과점화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 도서의 한국시장 점유율로, 일본도서의 번역 종수는 1990년 774종이던 것이

1) 일본대중문화개방 10년제인 현재 ‘니폰 필’이나 ‘일드’와 같은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한류’를 파고드는 ‘日流’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5년 1,244종, 2000년 4,837종으로 급신장되었고, 특히 일본소설 번역서는 1997년 106종에 불과하던 것이 10년만인 2007년에는 약 700종으로 신장하였다.²⁾

이를 입증하는 실례로 경향신문(2006)의 자료를 보면,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키친(『キッチン』)은 1999년 발매 이후 지금까지 약 11만부가, 에쿠니 가오리(江国香織)와 츠지 히토나리(辻仁成)가 쓴 냉정과 열정 사이(『冷静と情熱のあいだ』)는 2000년 초판 발행 이후 약 80만부가 팔렸고, 2005년 10월 번역된 에쿠니 가오리(江国香織)의 신작 도쿄 타워(『東京タワー』)는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돼 현재까지 약 15만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³⁾

일본 소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 번역물들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서양언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오역에 대한 지적은 심심찮게 언론이나 학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⁴⁾, 일본 작품의 번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오역에 대한 지적은 아주 적은 편이다.⁵⁾

본 연구의 소재가 되는 『翻訳と日本の近代(1998)』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와 가토 슈이치(加藤周一)가 일본의 근대사회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번역’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기술된 저서로, 소설 부문의 책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근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번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서적으로, 우리말 번역서인 『번역과 일본의 근대(2000)』는 일본의 근대사나 번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논문이나 서평 등에 자주 인용

2) 『기획회의』 218호, p.24.

3) 경향신문, 2006.02.27. 10:12.

4) ‘이권우의 요즘 읽은 책’ 한겨레신문(2004.10.30), ‘이윤기 그리스로마 신화 오류 많다’ 한겨레신문(2005.06.29), ‘동화 번역, 어린이 눈높이 못맞춘다’ 한겨레신문(2006.03.10).

1995년 창립된 ‘영미문학연구회’에서는 번역문화 혁신을 위한 현황점검의 결과물로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라는 서적을, 2007년 가을에는 ‘한국번역비평학회’가 발족되어, 번역비평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 『번역비평』이라는 학회지가 등장하였다.

5) 언론에서는 비교적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학회지를 통한 지적은 적은 수이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황경자(2000)와 호사카 유우지(2001,2002,2003), 오영은(2003,2005) 등이 있다.

문이 등장한다.⁶⁾ 필자 역시 일본의 번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번역서인 『번역과 일본의 근대』를 먼저 접하게 되었고, 번역서를 읽으며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翻訳と日本の近代』를 입수, 원서와 번역서를 대조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본 연구의 동기라고 하겠다.

뉴마크(181; 김효중 246 재인용)는 번역비평의 목적을 1)번역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2)번역가에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주기 위해 3)특별한 시대와 특별한 주제에 관련된 번역에 관한 생각을 조명하기 위해 4)탁월한 작가와 번역가의 작품 해석을 돕기 위해 5)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의미론적, 문법적 차이에 관한 비평적 평가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번역서의 번역 오류를 지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필자는 번역비평의 다섯 가지 목적 중, 첫째와 다섯째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원서와 번역서 사이의 의미론적, 문법적 차이라는 언어 내적인 문제점과 원서와의 대조 미흡으로 인한 누락이나 생략, 표기의 문제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오역 사례 지적과 같은 연구가 이들 사례를 유형화하고 보다 나은 번역물 생산의 피드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일한 번역의 수준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과 동시에 번역가들에게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일한번역물에 대한 여과장치의 필요성을, 일본어·문학 전공자들에게는 번역의 오류 및 비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언어 내적인 문제점

본 장에서는 「어휘/문법」과 「의미/독해」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들, 예를 들어 「目指す敵は暴虐政府(52)」의 [暴虐]을 「지향할 적(敵)은 폭학(暴虐)정부(56)」로, 「これのどこが教訓的か(76)」를 「여기서 어떤 것이 더 교훈적입니까?(76)」⁷⁾라고 번역하는 것과 같은 언어 내적인 문제로 인한 부적절한 번

6) 최경옥(2005), 이근희(2007), 성혜숙(2008) 등.

7) [暴虐]은 [횡포하고 잔악함]을 뜻하는 명사로, 우리말이나 일본어의 한자는 같으나 우리말에서는 이를 [폭학]으로 읽지 않고 [포학]이라고 읽는다. 또한 「これのどこが教

역과 관련된 것들을 다룬다.

1) 訳せなかったもの (目次vii)

→ 번역하지 않은 것

사례1)은 목차 제3장 중, 마지막 항목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Henry Wheaton의 『万国公法』 제1권 2장에는 “robbers or pirates”를 구별하여 설명하였는데, 일본어역 『万国公法』에서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번역하였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의 원서 내용을 보면 번역하는 이의 의지로 번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번역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었음을 기술하고 있다.⁸⁾ 결국 「訳せなかった」는 「訳す」라는 동사의 가능형인 「訳せる」의 부정형으로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는 옮긴이가 「訳せなかった」를 「訳さなかった」의 뜻으로 번역해 생긴 오류이다.

2) 日本の翻訳問題は、要するに一九世紀なかば、ペリー艦隊来航のごころから日露戦争まで～。(10)

→ 일본의 번역문제는 요컨대 19세기라고 한다면 페리(Matthew C. Perry, 1794~1858) 함대의 내항 때부터 러일전쟁 때까지 ~. (17)

사례2)는 「なかば」 이후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なかば」는 「일정 거리나 기간 등의 중간 부분이나 시기(一定の距離・期間などの中間のあたり)」⁹⁾

訓的か」는 「朋あり、遠方より来たる、亦た楽しからずや」「学びて時にこれを習う、また説ばしからずや」라는 문장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으로, 「여기서 어떤 것이 더 교훈적입니까?」라는 비교의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의 어느 부분이 교훈적이라는 말입니까?」의 의미의 문장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8) ‘해적과 도적’의 문제에 이어, ‘bankruptcy’의 번역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ここでも、破産の意味とあって、この第二巻は中絶しているのです。英文では同じチャプターにさらに入っているのですが、訳しきれないで終わっている。이에 대해 번역서에는 「여기서도 ‘파산’ bankruptcy의 의미인데, 제2권은 번역이 여기서 중단됩니다. 영문에는 같은 장에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데도 다 번역하지 않고 그만둔 겁니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訳しきれない」는 「번역하지 않고 가 아닌, 「번역할 수가 없어서」를 뜻한다.

를 뜻하는 말로, [5월 중순(五月のなかば)]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는 「中頃」의 뜻을 나타내는 「중엽」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3) 国の歴史が大事なのも、そこにつながってく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大きくって中国的、あるいは…。(68)

→ 나라의 역사가 중요한 것도 그것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칠게 말해서 중국적 또는 …. (70)

사례3)의 [大きく]는 [크다: 어떤 사물의 형태나 용적, 면적 등이 넓은 공간이나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大きい: ある物の形・容積・面積などが、広い空間・場所を占めている) / 범위가 넓다(範囲が広い) / 과장되다(大げさである)] 등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부사형으로, 상기의 사례에서는 「과장되다(大げさである)」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때의 [おおきく]는 우리말로 [거칠게]가 아닌 [과장되게]의 뜻으로, 「大きくって」는 「(좀) 과장해 말한다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4) 民権は、参政権というものによって束になってかかるというか、そんな感じでしよう。(91)

→ 민권은 참정권이라는 점에서 한다발이 되어 얽힌다고나 할까, 그런 감이 드는군요. (89)

사례4)의 앞 문장에는 당시 일본의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¹⁰⁾가 말하는 ‘모두들 民権 民権 하지만 실은 인권과 참정권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인권이란 개인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인민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민권이다’¹¹⁾라는 의견을 배경으로, 당시 ‘right, civil right, droit civil, political(right)’ 등의 번역어로 등장한 ‘民権, 人権, 参政権’ 번역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에 대해, 마루야마(丸山)와 가토(加藤)의 대화가 기술되어 있다. 옮긴 이는 일본어 「束」가 우리말로 [다발, 묶음]이고, [束+になる]의 형태를 취하였

9) 본 논문에 사용된 일본어 어휘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10) 『西洋事情』『学問のすすめ』 등의 저술이 있다.

11) 『翻訳と日本の近代, p.90』과 『번역과 일본의 근대, p.88』

으므로 [한다발이 되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어에서 [束になっかかる]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말로 [떼를 지어 덩비다/ 무리지어 공격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사례4)는 앞뒤 문맥상으로, ‘민권은 참정권이 라는 것과 한 데 얽혀 서로 영향을 주었다고나 할까’ 로 번역한다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5)孔孟のいけなところは「オールドクシー」の立場に立つことだ、という政教一致批判です。(96)
 → 공자·맹자가 안되는 부분은 ‘정통’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 하는 정교일치 비판입니다.(94)

사례 5)의 앞 문장에는 유교의 잘못은 道理와 物理를 혼동하고 있는 것과 자신들의 생각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다. 일본어 [いけない]는 [行くの可能動詞「行ける」に打ち消しの助動詞「ない」の付いたもの]이며, [「悪い」の婉曲な言い方。よくない。]의 뜻을 나타내어, [이 문장은 이 부분이 좋지 않다(この文章はここがいけない)]와 같이 [나쁘다/ 좋지 않다] 등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인다. 한편 우리말의 [안 되다]는 [섭섭하거나 가엾고 애석한 느낌이 있다/ 얼굴이 해쓱하거나 여위어 있다/ 현상이나 일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 등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인다. 우리말 쓰임에서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옮긴이는 [안 된다]라고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앞뒤 문맥을 볼 때 이는 [공자와 맹자의 잘못된 점은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이라고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 6)*最初の緒言は矢野文雄自身が書いていて～。(54)
 → 맨 처음에 나오는 일러두기(例言)는 야노가 직접 썼는데 ~.(58)
 *また、同書 例言に、揚げたる訳書の書目は、～。(55)
 → 또 야노가 직접 쓴 이 책의 일러두기를 보면 “열거한 역서의 목록은 ~.(59)

사례 6)의 우리말 번역을 보면, [緒言/ 例言] 모두를 [일러두기]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 [しよげん(緒言)]은 [머리말/ 서언/ 서론(まえがき、序言)]의 뜻을, [れいげん(例言)]은 [범례/ 일러두기(書物の凡例に述べる言葉)]의 뜻을 나

타낸다. 이 두 어휘는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례(6)의 첫 번째 사례는 [맨 처음에 나오는 머리말은 야노가 직접 썼는데 ~]로 고쳐야 한다.

7)*丸山：日本の感覚は依然としてお上の裁判で、まだ理想的な裁判が大岡裁判のイメージだ。お上が同時にアンパイアなんですね。だから英米法にくらべると、ややお上裁判的な要素のある大陸法のほうが、まだ体質にあったんです。(139)

→마루야마 : 일본의 정서는 여전히 어르신(오상)의 재판입니다. 아직도 이상적인 재판이 오오카(大岡) 재판의 이미지예요. 윗사람이 동시에 중재자인 셈이죠. 따라서 영미법에 비하면 어르신 재판적인 요소가 있는 대륙법이 더 체질에 맞는 거죠.(133)

*加藤：でも、大陸法の方が近いといっても、日本では大家とけんかしたら、裁判に訴えないで手土産でも持ってあいさつにいけばよかった。(139)

→가토 : 하지만 대륙법 쪽에 가깝다고는 해도, 일본에서는 지체 높은 가문과 분쟁할 경우에 재판에 호소하지 않고 선물이라도 들고 인사하러 가면 그만이었죠. (134)

사례7)의 마루야마(丸山)와 가토(加藤)가 말하는[おかみ(오상)]와「おおや(大家)」를 번역서에는 [어르신/ 윗사람]또는 [지체 높은 가문]으로 번역해 놓았다. 일본어에서 [おかみ(오상)]는 [天皇、朝廷、政府、官庁、貴族、主君] 등의 뜻을, [おおや(大家)]는 [おもや、本家、やぬし] 등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말 번역어로 [おかみ(오상)]는 [신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천황이나 정부, 관청, 주군] 등의 뜻을, [おおや(大家)]는 [셋집 주인/ 집주인/ 안채/ 본가] 등의 뜻을 나타낸다. 번역서가 채택한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나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어 일컫는 말]로, 사례7)의 [おかみ(오상)]와는 좀 다른 뉘앙스를 띠다고 보인다. 이는 [국가/ 정부/ 관청]을 아우를 수 있는 [관(官)]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大家とけんかしたら]는 일본에서 보통 사용하는 말로 상기의 사례는 [지체 높은 가문과 분쟁할 경우]가 아닌 [집주인과 싸우게 되면] 정도로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다.

8) * ~、歌をつくるのに勅撰集を手本としていいわけですね。(39)

→ ~시가를 짓는 데 칙선집(勅選集)을 저본으로 하면 그만이겠죠. (45)

*福地の天皇帝政論に対抗して書いたのですが、種本はバジョットだったのですね。

(168)

→후쿠치의 천황제정론에 대해서 썼던 건데, 그 저본이 배졌이었던 거죠. (162)

사례8)을 보면 일본어의 [手本/種本] 모두를 [저본]으로 번역해 놓았다. 일본어의 [てほん(手本)]은 [배우는 사람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글씨나 그림이 쓰여 있는 책(習う人が模範とすべき字や絵などのかいてある本) / 본받아야 할 일이나 모범(見習うべき物事/模範)]의 뜻을, [たねほん(種本)]은 [저술이나 강의의 근간이 되는 서적(著作・講義などのよりどころとする書物)]의 뜻을 나타낸다. 첫 번째 사례의 문장은 [시가를 짓는데 척선집을 모델로...]로, 두 번째 사례는 [그 근간이 된 서적은...]으로 번역하는 것이 읽는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9)百人一首のパロディーでじつによくできています。(180)→백인일수의 패러디로서 곧잘 등장하죠. (173)

사례9)의 앞 문장에는 『明治文化全集』의 [文明開化編]에 관한 대답을 통해 일본의 [문명개화]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이어서 [민중용으로 만들어진 ‘文明開化百人一首’라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옮긴이는 상기 문장 [パロディー]를 [패러디로서]로 번역함으로 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よくできています]를 [よくできています]로 인식하고, [등장하다]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것(文明開化百人一首)은 ‘百人一首’를 패러디한 것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10)それに西周が句読訓点をつけて開成所から出したのが、さっきふれた慶応元年の『万国公法』なのです。(121)→거기에 니시 아마네가 구독훈점을 붙여 막부의 개성소에서 출간한 것이 앞서 말한 1865년의 『만국공법』이죠. (115)

사례10)의 원서에서 사용한 ‘句読訓点’의 ‘句読点’은 일본어 문장을 쓸 때 사용하는 마침표(句点)와 쉼표(読点)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문장부호

2) 東涯の『助辞考』(一七一六年)とか。(33)

→도가이의 『조자고(助字考, 1716)』같은 것 말이죠. (39)

사례2)의 번역서에 사용된 [じじ(助字)]는 한문에서 명사나 동사, 형용사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実字와 문법상의 형식적인 뜻만 나타내는 虚字를 도와주는 말로, 한문에서 어구 끝에 붙어 그 어구에 여러 가지 뜻을 덧붙이는 문자로는, [也, 矣, 乎, 於, 与, 何, 誰] 등이 있다. [じじ(助辞)]는 조사 또는 조사, 조동사의 총칭으로, 경우에 따라 [助辞]를 [助字]라고도 한다. 이는 옮긴이가 일본어 [じじ]를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助辞]를 [助字]라고 변환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이 書名이 아닌 일반 문장에서 사용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바꾸어 쓸 수도 있겠으나, 사례2)는 이토 도가이(伊藤東涯)가 편집한 책인 『助辞考. (上,下)』¹³⁾를 말하는 것으로, 『助辞考』로 바로 잡는다.

3) 契沖が在原業平の辞世の歌を激賞しているのです。(42)

→게이추가 아리와라노 나리히라(在原業平, 825~880)가 쓴 난세(乱世)의 시를 격찬하고 있는 겁니다. (47)

사례 3)은 원서의 辞世의 辞를 亂으로 잘못 보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단어는 뜻이 엄연히 다른 것으로, [辞世]는 [임종 때 지어 남기는 시(死に臨んで残す言葉・詩歌)]를, [乱世]는 [질서가 문란하고 전란이나 소동이 그치지 않는 세상(秩序が乱れて戦乱や騒動などの絶えない世の中)]을 뜻한다. 이는 [게이추가 아리와라노 나리히라(在原業平, 825~880)가 임종 때 남긴 시]로 바로 잡는다.

4) つまり中国でいうと、「経」「史」「子」「集」で、いちばん大事なのは、経なのです。

つぎに「史」で、それから三番目に「子」がきて、最後に「集」です。すべての人類は「経」「史」「子」「集」であって、まず「経」なんだ。~「経」がいちばん大きくて、そのつぎに「史」=歴史書が来る。(69)

→중국의 경우에는 결국 ‘경(經)’ ‘자(子)’ ‘사(史)’ ‘집(集)’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이죠. 다음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가 오고,

13) 『助辞考』에 대한 검색은 [早稲田大学蔵書目録]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이 ‘집’입니다. 모든 인류가 ‘경’ ‘자’ ‘사’ ‘집’인데 우선은 ‘경’, 곧 경전이지요. ~ ‘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자’, 곧 여러 가지 사상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 곧 역사책이 오지요. (70-71)

사례4)는 유교의 사고전서에 관한 내용으로, 四庫全書라는 명칭은 청나라 건륭제가 정했으며, 그는 四庫全書館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편찬케 했다고 한다. 四庫는 유교의 경전(經), 역사서(史), 경전 이외의 유학자들의 저서와 유교 이외의 학문 유파의 서적(子), 개인의 문집 또는 전집(集)의 사부를 말한다. [經史子集]의 순서가 정해진 것은 東晋때로 李充이 당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던 서적들을 [經史子集]의 순서에 따라 사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고 한다.¹⁴⁾ 번역서 첫 부분에서 [史]와 [子]를 바꾸어 놓음으로 해서, 문장 전체에 오류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서에 없는 [그 다음이 ‘자’, 곧 여러 가지 사상서적입니다]라는 문장이 삽입되었다. [經史子集]은 본디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를 바로 잡으면 아래와 같다. [중국의 경우에는 결국 ‘경(經)’ ‘사(史)’ ‘자(子)’ ‘집(集)’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이죠. 다음으로 ‘사’, 그리고 세 번째로 ‘자’가 오고, 마지막이 ‘집’입니다. 모든 인류가 ‘경’ ‘사’ ‘자’ ‘집’인데 우선은 ‘경’, 곧 경전이지요. ~ ‘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 곧 역사책입니다.]

5) ぼくらは社会主義の洗礼をうけているから、なんとなく私有財産絶対は悪い、けしからんという気分が強かった。国有の方がいい、あるいは全国の土地が日本の代表である天皇のものであることは私有財産絶対よりは進歩的であるというような考え方が当時一般的には非常にありました。それがまたワイマール憲法以後の世界的な風潮と合ったのです。(92)

→우리도 사회주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유재산의 절대화는 나쁘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바이마르 헌법 이후의 세계화 풍조와도 들어맞았던 거지요. (90)

사례5)는 당시 일본의 토지소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사유재산을 절대화

14) <http://www.kungree.com/cht/kr15.htm>을 참조함.

시키는 것 보다는 전국의 토지를 国有 또는 천황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보적인 생각이었음을 나타내주는 문장으로, 번역서에는 상기의 밑줄 친 부분의 번역이 옮긴이의 의도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누락되어있다.¹⁵⁾

6)調べたことはないけれども、明治初期の宣教師たちは、言語だろうが博物だろうが、万能教師みたいに教えさせられるのです。ヘボン (James Curtis Hepburn. 医師として、またヘボン式ローマ字創始でも有名。一八一五～一九一一) にしろ、クラーク(William Smith Clark. 烈烈なキリスト教精神で札幌農学校の学生の信望を集めた。一八二六～六八) にしろ、すべての学問に通じているわけじゃないから、…。(114)

→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메이지 초기의 선교사들은 언어든 박물이든 마치 만능교사라도 된 듯 가르쳐달라는 주문을 받았겠죠. [헵번식 로마자 표기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의사] 헵번(James Curtis Hepbur, 1815~1911)인들 모든 학문에 정통하지는 않았을 테니 상식정도가 아니었을까요? (111)

사례6)의 원서에 사용된 [~にしろ ~にしろ]는 체언이나 활용어의 종지형에 붙어 [(설령) ~라 하더라도/ ~인들/ ~도]등의 뜻을 나타내며, 어떤 것을 나열할 때 사용되는 어휘이다. 번역서에 [헵번인들]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 때 다음에 나열할 단어인 「William Smith Clark」에 대한 설명이 있음을 옮긴이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밑줄 친 부분의 「クラーク」에 관계된 설명을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클라크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여 [헵번식 로마자 표기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의사] 헵번(James Curtis Hepbur, 1815~1911)도, [열렬한 기독교 정신으로 삿포로 농업학교 학생들의 신망을 받았던] 클라크(William Smith Clark, 1826~68)도] 로 바로 잡는다.

7)ヨーロッパだと、実験というのはベーコン (Roger Bacon, 一二一四～九四)あたりからだと思います。(164)

→유럽의 경우에 실험이라는 것은 베이컨 (Roger Bacon, 1220?~1292)정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158)

15) 사례 5)는 누락의 문제이므로, 대안 번역은 제시하지 않는다.

영국의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며 근대 과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베이컨의 출생 연대와 사망 연대가 원서와 번역서에서 다르게 나타나 있다. 한 예로 옮긴이가 원서(33)의 오류인 이토 도가이(伊藤東涯)의 출생 연대와 사망 연대를 번역서에 바르게 잡아놓고 있는 것¹⁶⁾으로 보아, 상당히 꼼꼼하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이컨의 경우에는 기입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베이컨의 출생연대를 [1220?]으로 옮겨 놓았다. 일본 쪽 인명사전이나 우리 쪽 사전¹⁷⁾을 조사한 결과, 원서에 기록된 대로 [1214?]로 옮겨놓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8) 一八八二年(明治一五)、福沢諭吉は『時事新報』に「帝室論」と題した論説を連載し、…。(168)

→1881년(메이지 15) 후쿠자와 유키치는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제실론(帝室論)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연재하고 …。(162)

사례8)은 원서와 번역서의 서력연호와 일본연호가 다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明治維新]이란, [明治 政府에 의해 徳川막부 체제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이고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뜻하는 것으로, 그 시작 연대는 1868년이다. 원서의 [明治一五年]은 1882년에 해당되므로, 번역서의 1881년은 [1882년]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9) コミュニズム / コムニズメ (172-3)

→코뮤니즘 / 코무니즈메 (165-6)

사례9)는 당시 일본이 유럽의 사회주의를 보고 어떻게 예방책을 세워야 할지를 고민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나오는 어휘이다. 당시 가토 히로유키

16) 원서에는 이토 도가이의 사망연대를 1738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번역서에는 1736년으로 기록하여 원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놓고 있다.

17)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와 大辞泉 JapanKnowledge 에 따르면 베이컨의 출생연대와 사망연대는 ‘1214?~1294’가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사전 모두 출생연대인 1214년에 ‘?’를 붙여놓은 것을 보면 출생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번역서의 1220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加藤弘之)라는 사람이 저술한 『真政大意』에 「コムニスム」라고 표기한 것을 놓고, 독일어에 능통했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가 프랑스 문헌을 놓고 독일어로 발음한 것이 아니겠냐는 대답을 나눈 부분이다. 국립국어연구원(125-6)의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를 보면, 일본어 [지]는 한글의 어두, 어중, 어말 모두 [스]로, [지]는 [즈]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상기의 문제는 우리말 원칙의 문제만이 아니라, 본문 자체에서도 상기의 단어가 프랑스 문헌을 보며 독일어로 읽어 표기했음을 지적하는 문장으로 표기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내용의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으면 [코무니스메(コムニスム)]가 된다.

10)번역서의 일러두기 4항을 보면, ‘모든 일본의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했으며 해당 고유명사가 처음 나올 때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라고 기술해 놓고 있다. 아래의 사례들은 인명이나 지명은 아니지만, 일본어의 우리말 표기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 일부이다.

*南北朝時代から室町時代(4) / 戦国時代(18)

→남북조(南北朝)시대(1336~1392)와 무로마치(室町)시대(1338~1573)(13)

→센코쿠(戦国)시대(1467~1568)(26)

일본의 역사를 크게 [원시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나누어 기술할 때 상기의 시대는 근세에 해당한다. 옮긴이는 [室町/戦国]는 일본어로 읽어 [무로마치/센코쿠]로 옮기고, [南北朝]는 우리말로 읽어 [남북조]라고 옮기고 있다.

*守護・地頭／石高(22)

→슈고(守護)·지토(地頭)／석고(石高)(29)

일본어 [しゅご(守護)]는 [무로마치시대에 지방의 치안 유지를 맡던 벼슬]이고, [じとう(地頭)]는 [동시대에 莊園을 관리하고 조세의 징수나 치안 유지를 맡았던 벼슬]이며, [こくだか(石高)]는 [쌀의 수확량이나 쌀로 지급하던 녹봉의 분량을 뜻한다. 이것 역시 앞의 두 어휘는 일본어로 읽고, 마지막 어휘는 우리말로 읽어 옮겨놓았다.

*蝦夷志/南島志(p.34)

→『에조지』(蝦夷志,1720)『남도지』(南島志) (p.39)

[えぞ(蝦夷)]란 [ほっかいどう(北海道)의 옛 이름]이고, [なんとう(南島)]란 [りゅうきゅうしよとう(琉球諸島) 지금의 오키나와]를 이르는 지명이다. [南島志]를 [남도지]라고 옮긴다면, [蝦夷志]도 [하이저]라고 옮겨놓아야 할 것이다.

옮긴이는 일러두기의 4항을 전제로 하여, 이들 어휘 중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본어로 읽어 표기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휘는 한자를 우리말로 읽어 옮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면 일러두기에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무로마치]나 [센코쿠]를 일본어로 읽었다면 [남북조]도 [남보쿠초]와 같이 읽어 표기해야 할 것이고, [슈고]나 [지토]라고 표기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석고]도 [고쿠다카]로, [蝦夷]를 [에조]로 표기한다면 [南島]도 [난토]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일본어로 옮길 때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일본어의 경우)을 준수하여야 하겠지만, 한일/일한 번역시 상대국 모어 화자가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표기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은 아닐까한다.¹⁸⁾

4. 맺음말

『翻訳と日本の近代』의 우리말 번역서 『번역과 일본의 근대』는 일본의 근대

18) 예를 들어 [승례문]을 관광안내문에 일본어로 표기할 때, 지금까지는 [スンリエムン]으로 표기해왔다. 다음은 필자가 2007년도 한국관광공사가 실행한 ‘지자체 관광지 일본어 표기’사업에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받은 한국관광공사 소속 일본인 감수위원의 [승례문] 표기에 대한 견해이다. “[スンリエムン]은 일본인에게 발음하기 어렵고 외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スンネムン]과 [スンイエムン] 중에는 후자로 발음할 때 더 [o] 발음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후자가 적절할 것 같은데, 교육인적자원부 표기법에 따르면 スンニェムン이 맞습니다. 병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화에 번역이 끼친 영향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서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가 두 텍스트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말 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들 번역상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사례는 논문의 본론 부분에 기술하였다.

본론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점 중, 필자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待遇表現]의 문제가 있다. 원서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와 가토 슈이치(加藤周一)가 일본의 근대사회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번역’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책으로, 원서는 마루야마(丸山)가 처음부터 보통체를, 가토(加藤)는 정중한 문체인 「です・ます体」를 사용하고 있다.¹⁹⁾ 옮긴이가 어떤 생각에서 원서에 사용되어 있는 보통체와 정중한 문체를 구별하지 않고 번역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이를 구별하여 번역하였다면 마루야마의 이야기를 가토의 이야기로 바꾸어놓는 것과 같은 오류는 초래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²⁰⁾ 끝으로 필자가 두 텍스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언어 내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중급 정도의 학습자들이 학습하게 되는 관용표현이나 경어(敬語), 연어(連語) 등의 우리말 표현에 오류가 있거나 매끄럽지 않은 번역의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 어휘의 우리말 번역²¹⁾에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은 한자 어휘의 번역은 보다 철저하게 어휘 조사를 하여 보다 적합한 우리말을 찾아내야하겠고, 이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한자 어휘는 주석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

19) 마루야마(丸山)는 가토(加藤)보다 출생연도도 5년이나 앞서고, 일본 정치학계뿐만 아니라 일본 지성계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하는 인물로, 원서에서의 두 사람의 대담은 자연스럽게 보통체와 정중한 문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20) 원서 7쪽 5행과 번역서 15쪽 2행 참조.

21) 예를 들어, 우리말 번역서 27쪽에 사용된 한자 어휘 「화문(和文)」이나, 45쪽의 「가라고고로(漢心)」, 99쪽의 「소라이는 ‘사’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徂來は「私」を悪いと言ってははいない。)와 같은 우리말 번역을 보면, 과연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아닌 일반 독자들이 이와 같은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야 할 것이다.

둘째: 언어 외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조작업 소홀로 보이는 문자의 삽입²²⁾, 일본어 워드 작업 시 일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同音異字語의 오류, 문장의 누락과 인명, 지명, 書名에 대한 우리말 표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한 문자의 삽입이나, 문장의 누락, 同音異字語의 문제는 출판을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철저히 감수가 이루어진다면 오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말 표기에 일관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옮긴이가 자신의 번역서 일러두기 4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외래어 표기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어 어휘는 그대로 일본어를 우리말로 대치하고, 익숙하지 않은 어휘는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어 놓는 식의 번역이 아닌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일관성을 보이는 번역이 되도록 번역서에 나오는 어휘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놓고 참고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일본어 전공자인 옮긴이의 노고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옮긴이는 일본의 근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으로, 일본의 근대사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32쪽에 달하는 ‘옮긴이 주’를 달아 놓았고, 원서에 없는 도판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필자는 금번 우리말 번역서의 오류 분석을 통해 『번역과 일본의 근대』와 같은 전문서적의 번역은 해당 서적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와 언어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전공자들이 공동 작업을 하거나, 적어도 출판을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어학전공자들에게 철저히 감수를 하도록 하는 여과장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일한 번역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

22) 원서 124쪽 12행의 사례: 英法とはもともと、言葉がちがうのです。(영미법과는 워낙 언어가 다르죠.)

본어·문학 전공자들도 자신들의 전공을 최대한 살려 일한 번역서의 번역오류나 비평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효중. 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 남기심. 2001. 『한국 어문 규정집』.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백원근. 2008. 「번역출판의 양적성장과 그 함의」. 『기획회의』. 서울: 한국출판
마케팅연구소.
- 성혜숙. 2008. 「해석으로서의 번역」. 『번역과 일본문학』. 서울: 도서출판 문.
- 이근희. 2005. 『번역산책』.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07. 「번역과 한국 및 일본의 근대화」. 『번역학연구』8: 2. 한국번역학
회.
- 이상원. 2006. 「최근의 번역 비평 서적에서 나타난 번역 평가 규범 분석」. 『국
제회의 통역과 번역』 8: 1.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 임성모 옮김.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도서출판 이산.
- 정선태. 2003. 「근대 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배달말』 33. 배달말학
회.
- 丸山真男·加藤周一. 1998. 『翻訳と日本の近代』. 東京: 岩波書店.

<참고기사>

- 이권우. 2004. 10. 30. 「이권우의 요즘 읽은 책」. 한겨레신문.
- 이상주. 2006. 02. 27. 「日 소설 강점은 ‘세련된 재미」. 경향신문.
- 임종엽. 2005. 06. 29. 「이윤기 그리스로마 신화 오류 많다」. 한겨레신문.
- _____. 2006. 03. 10. 「동화 번역, 어린이 눈높이 못맞춘다」. 한겨레신문.

[Abstract]

**Japanese-Korean Translation problems in Korean Translation
of 『HON'YAKU TO NIHON NO KINDAI』**

Chung, Il-Young
(Kyung Hee University)

Japanese pop culture has been under restriction from influx into Korean soil after the normaliz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With the culture-open policy from Korean government since 1998 a great deal of Japanese movies, comic books, and novels and other sects of pop culture flowed into Korean society by stages as much as the words, "Nihon pil," and "Ild" emerge.

Book statistics in 2007 displayed that 23.2 percent out of newly published books of 53,225 kinds was occupied with translated books and 37 percent of Japanese books occupied among the translated books. Occupancy rates of Japanese books in Korean market outgrew 4,837 kinds in 2000 from 774 kinds in 1990.

Japanese novels translated in Korean language grew 700 kinds in 2007 which numbered 106 kinds in 1997. The occupation rates of Japanese novels in Korean market have been growing rapidly whereas the renditions have been published with few filtering system.

HONYAKU TO NIHON NO KINDAI (1998, Iwanami co.) is the book often cited to the related theses or book reviews. This thesis has focused on the first and fifth objectives among the five goals of evaluation in translation by New Mark: first, interior problems in languages occurred from the difference in semantics or grammatics and the fifth, exterior problems, such as

omission, ellipsis or presentation occurred from comparison failure.

I wish similar researches such as wrong translations issues could be stylized and used as a feedback hence to improve the levels of Korean renditions from Japanese books. I also wish this thesis may draw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filtering system for ever increasing Korean translations from Japanese sources and to the errors and criticism in translation.

▶ Key Words: translation criticism, translational errors

정일영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sophi@khu.ac.kr

관심분야: 일본어학, 일한 번역, 일한/한일관광안내문 번역

논문투고일: 2008년 7월 20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12일